

# “순천 숲과 밥상이 어우러진 특별한 치유 만끽하세요”

### 오는 27일 조계산 천년불심길 일원 ‘치유미식 트레일런’ 7km·14km 운영 특산품 부스·힐링 콘텐츠 홍보관도

순천시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청정한 자연 속 달리기와 건강한 지역 미식을 결합한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조계산 천년불심길 일원에서 숲길을 누비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순천 치유미식 트레일런’ 행사가 막을

린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체를 깨우고, 완주 후에는 순천의 정성스러운 밥상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신개념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행사의 주 무대인 조계산 천년불심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와 삼보사찰 송광사를 잇는 유서 깊은 숲길로, 참가자들은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흙길을 밟으며 자연의 리듬과 온전한 휴식을 경험하게 된다.

코스는 가볍게 자연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7km 코스와 본격적인 트레일러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14km 코스로 운영된다.

모든 참가자는 배번호와 기록칩을 부착하고 코스에 나서며, 완주자 전원에게는 성취감을 더해줄 특별 제작 메달이 수여되며, 순위를 다투기보다 한걸음씩 자신만의 호흡으로 코스를 극복해 내는 과정을 체험한다.

대회 완주자들에게는 선암사와 송광사 인근 음식 거리와 연계된 따뜻한 건강한 치유 식사가 제공된다. 호젓한 산행 후 맛보는 지역 고유의 산채 밥상은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의 감동을 선사한다.

아울러 출발과 도착 지점인 선암사 일원에서

는 순천의 매력을 알리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순천 명인 차와 지역 특산 가공품 시음·시식 부스, 관광 힐링 콘텐츠 홍보관이 운영돼 트레일러의 여운을 더욱 풍성하게 다져줄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운동과 음식, 관광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순천형 치유미식 콘텐츠’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트레일러닝과 산행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600명 내외다.

참가비는 7km 코스 5만원, 14km 코스 6만원

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런 트립’ 공식 누리집 (<https://projectruntrip.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셔틀버스 운행 등 세부 사항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등수 경쟁이 아닌, 대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미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조계산의 청정한 숲길과 순천의 따뜻한 밥상이 어우러진 이번 트레일러에서 일상의 무게를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곽동현 기자

## 곡성군, 주민 손으로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시동

### 104개 마을 참여...각 500만원 지원 기획·집행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력

곡성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뜻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대표적인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다.

군은 사업을 마중물 삼아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고유의 청정 자원을 보존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곡성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으뜸마을로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은 총 104곳이며, 군은 각 마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벽화 그리기, 꽃밭 조성, 냇물 정비, 마을 쉼터 조성 등 각 지역 특성과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집행, 현장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주민들의 발방울과 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밖에 군은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에는 우수 마을을 선정해 추가 인



곡성군은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인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청곡마을 자치회에서 진행한 으뜸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모습. <곡성군 제공>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열기를 독려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 으뜸마을 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이웃이 함

께 담 흘리며 끈끈한 정을 회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곡성의 모든 마을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장흥군, ‘투기 방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장흥군은 8일 “농지의 투기적 보유·불법 이용을 방지하고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농지 이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전체 농지 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한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8월 1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장기간 미경작 및 목적 외 이용 농지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농지 관리 및 정책 수립에 활용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지는 지역 농업의 기반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고흥군, 구강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이동진료버스·취약층 맞춤 관리 등 호평

고흥군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1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군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동구강진료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호평을 받았으며,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실이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치아홈메우기 등을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찾아가는 이(齒)-로운 구강검진사

업’을 전개하며 치과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해 온 구강보건사업이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주민 없이 누구나 양질의 예방 중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고흥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사진> 고흥군보건소

## 화순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내달 22일까지 온라인·방문 면접조사

화순군은 8일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관내 5천15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지정 통계조사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경제 정책 수립과 각종 학술 연구를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방문 면접조

사를 병행한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경제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면접조사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문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를 직접 찾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공통 항목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최한 자치행정과장은 “경제총조사는 화순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며 “조사원 방문 시 사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구례군, 방학·농한기 맞이 ‘청년 행정인턴’ 모집

### 오는 19일까지...19-30세 총 8명

구례군은 8일 “대학교 방학과 농한기를 맞은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실무 경험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청년 행정인턴’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8월8일) 이전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0세(1996-2007년 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대면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선발된 청년은 추첨 순위에 따라 희망하는 근무 부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3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구례군 산하 실과 소원 및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공직 사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근무 종료 후 참여자들의 의견과 성과를 꼼꼼히 분석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 여수시, 여름철 산림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숲속 물놀이·생태체험 등 제공

여수시는 8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체험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8월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휴양·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을 활용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숲속 물놀이 및 자연 감각 체험 ▲여름철 곤충·식물 생태해설 ▲가족 참여형 숲 체험 및 만들기 활동 ▲산림휴양·치유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계절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진>

프로그램은 관내 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 일반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을 제한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이용 수요에 맞춰 1일 2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프로그램 예약 및 접수 관련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061-659-461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참여를 확대하고 산림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